

편집 및 발행인 : 조정희 원장 · 발행처 :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·지원센터 ·
총괄 : 김동환 · 감수 : 이연경 · 전화번호 : 051-797-4913 · E-mail : kdong@kmi.re.kr

목 차

▶ 아세안 물류시장 동향

- 인도, 수출 물류 이중 타격...유럽 운임 급락 미국 냉동화물 급감

▶ 유럽 물류시장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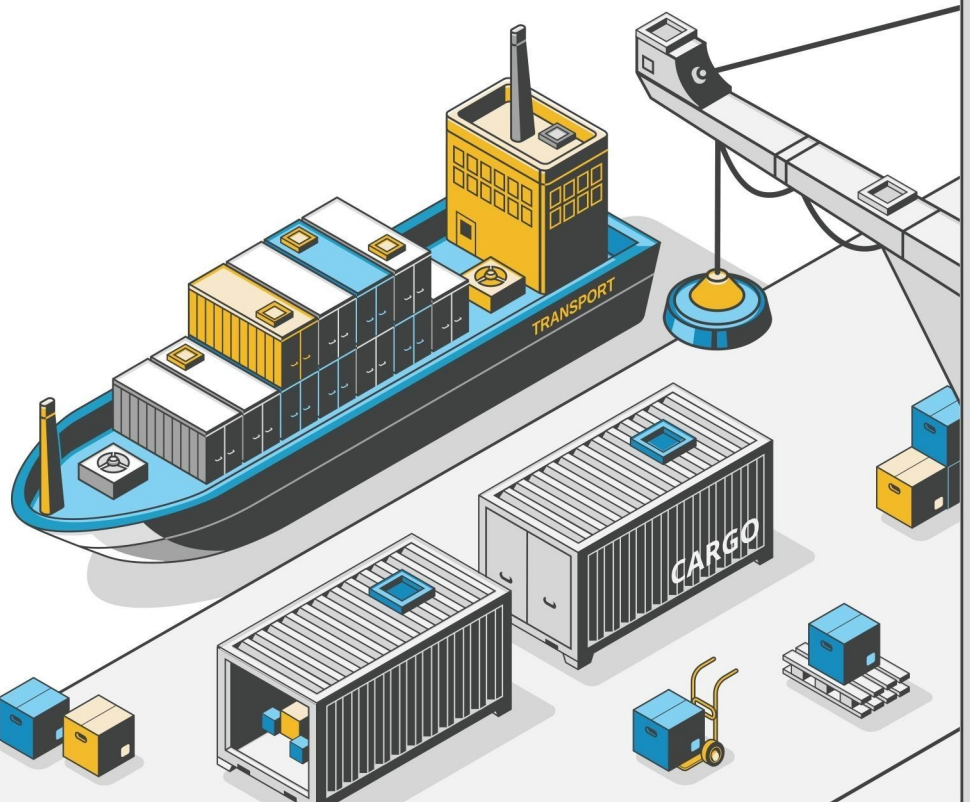
- EU, 산림전용방지규정 시행 1년 추가 연기

▶ 아프리카 물류시장 동향

- 아프리카 핵심광물 확보 경쟁 본격화...안정적 수급을 위한 로비토 회랑 중요도 확대

▶ 공지사항

- 「국제물류 정보포탈」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서비스 안내



인도, 수출 물류 이중 타격... 유럽 운임 급락·미국 냉동화물 급감

- ▶ 인도의 해상 수출 시장이 유럽과 미국을 잇는 주요 항로의 운임 하락과 관세 인상 압력으로 흔들리고 있음

 - 유럽항은 수요 위축과 선박 과잉으로 운임이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으며, 미국항은 고율 관세로 냉동·제약 화물 수출이 급감해 물동량 감소와 함께 운임도 하락하고 있음
 - 업계는 수요 부진과 외부 규제 리스크의 결합이 단기 손익뿐 아니라 장기 항로 전략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음

- ▶ 인도-유럽 항로에서는 시장 변동성 속에 평균 품목무차별(freight-all-kinds, FAK) 운임이 6주 만에 절반 가까이 급락

 - 나바셰바(Nhava Sheva)에서 펠릭스토(Felixstowe)/로테르담(Rotterdam) 구간에 대한 주요 선사들의 평균 FAK 요율은 6주 전 TEU/FEU당 1,600~1,800달러에서, TEU(20피트 컨테이너)당 900~1,000달러, FEU(40피트 컨테이너)당 1,000~1,100달러 수준까지 떨어짐
 - 특히 COSCO, ONE 등 아시아계 선사들이 물동량 확보를 위해 공격적인 요율 인하에 나서고 있으며, 현지 포워더들은 “운임이 마케팅 도구가 되어버렸다”며, “선사 간 과열된 가격 경쟁이 시장 전반을 압박하고 있다”고 밝혔음

- ▶ CMA CGM, MSC 등 일부 선사는 선박 공급을 조정하기 위해 기항지 축소와 허브 항만 우회를 단행

 - CMA CGM은 41주차 ‘EPIC’ 서비스에서 서인도 기항을 생략했으며, 인도-미국 동부 ‘Indamex’ 항로에 모로코 탕헤르(Tangier) 기항지를 추가해 유럽행 화물의 간접 운송을 확대함
 - MSC도 인도-미국 동부 항차 중 토고(Togo) 로메(Lome) 기항을 통해 유럽·지중해행 화물 환적 기능을 강화함
 - 포워더들은 “인도 수출업체들이 이미 휴가 시즌 선적을 마무리한 상태여서, 당분간 유럽 수요 반등은 어려울 것”이라고 진단함

- ▶ 인도-미국 간 냉동·냉장화물(reefer) 수출은 2025년 8월 말 발효된 50% 고율 관세 이후 30~50% 감소

 - 수산물, 냉동식품, 제약 등 주력 수출품이 일제히 영향을 받고 있음
 - Bhavik Mota 머스크(Maersk) 인도·중동·아프리카지역 해상 총괄은 “새우 등 해산물 수출량이 크게 줄었으며, 제약 제품은 현재까지는 안정적이지만 향후 제약 분야에도 추가 관세가 예정돼 있어 영향이 우려된다”고 밝힘

- Sanyukta Kulkarni DSV 인도지역 트레이드 담당자는 “당장은 기존 계약물량 출하가 있으나, 대규모 거래 감소와 함께 내년 초까지 수요 위축이 이어질 수 있다”고 전망함

➤ 선사들은 블랭크 세일링(항차 취소)이나 리퍼 플러그(reefer plug) 할당 축소 등을 통해 운임 방어에 나섬

- 나바셰바(Nhava Sheva)에서 뉴욕까지의 FAK 또는 계약 운임은 FEU당 3,000~3,200달러 수준으로, 9월 초 대비 약 500달러 하락함
- ONE은 최근 남인도 하이데라바드(인도 제약 산업 중심지)에서 나바셰바항까지 전용 리퍼 열차 서비스를 신규 도입했으며, 본 노선은 미국 동부행 항차와 연계해 운영됨

➤ 유럽·미국 항로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수요 둔화와 운임 하락은 글로벌 공급망과 가격 책정 전략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, 이에 따라 우리 해운·물류기업의 전략적 대응이 요구

- 국내 포워더는 아시아발 요율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사와의 장기계약 확보, 스페이스 협상력 강화가 필요하며, 인도발 수출 일정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선적 타이밍 조율, 화물흐름 예측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음
- 항만 혼잡, 운송 지연, 장기계약 재협상 등 복합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어, 국내 물류기업은 현지 파트너와의 협업을 통해 탄력적인 네트워크 운영과 위험 분산 전략을 마련해야 함
- 이와 더불어 리퍼 및 유럽 경유 복합운송 등 틈새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차별화된 전략이 요구되며, 냉동특화 운송이나 고부가가치 화물 집중 전략이 유효할 수 있음

EU, 산림전용방지규정 시행 1년 추가 연기

- ▶ 유럽연합 집행위원회(EC)가 IT 시스템 준비 미비를 이유로 EU 산림훼손 규정 (EU Deforestation Regulation, EUDR)의 시행을 또다시 1년 연기하기로 결정

 - EUDR은 EU와 연계된 산림훼손을 줄이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교역 파트너국과 업계 단체들의 반발에 부딪혀 왔음
 - 이번 연기는 유럽의 그린 아젠다를 약화시킬 위험이 있으며, 환경단체들의 감시를 더욱 강화시키고 있음

- ▶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디지털 인프라가 규정 준수(compliance)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이유로 EUDR 시행을 1년 더 늦출 예정

 - 이 조치는 환경담당 집행위원 예시카 로스왈(Jessika Roswall)이 유럽의회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확인되었으며, 올해 12월 대기업을 대상으로 단계적 시행이 예정되어 있던 규정의 두 번째 연기임
 - '21년 도입된 EUDR은 팜오일, 쇠고기, 목재, 대두, 코코아, 커피, 고무 등 상품을 거래하는 기업들에게 '20년 이후 산림훼손이 발생하지 않은 공급망임을 입증하도록 요구함
 - 이 법은 수입으로 인한 산림훼손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세계 최초의 시도로 평가받고 있으며, 브뤼셀은 EU 소비가 전 세계 산림 손실의 약 10%를 유발한다고 추정함
 - EU 및 제3국 사업자 간 거래를 추적·검증하도록 설계된 디지털 플랫폼은 법 집행의 핵심 인프라로 이 시스템이 없이는 기업들이 필지(plot) 단위의 생산지까지 입증해야 하는 추적 가능성 요건(traceability requirement)을 충족할 수 없음

- ▶ 이 규정은 유럽 내부와 외부 모두에서 저항에 부딪혀 왔음

 - 브라질·인도네시아·미국 등은 규정 준수가 비용을 높이고 수출을 제약할 것이라고 주장함.
 - 미국 펄프·제지 업계는 예외 적용을 요구했으며, 폴란드와 오스트리아 등 일부 EU 회원국도 자국 생산자들의 추적가능성 기준 충족에 어려움을 제기함
 - 유럽이사회와 의회 간 이전 절충안에서도 이미 시행이 1년 연기된 바 있음
 - 최근 유럽의회는 국가별 산림훼손 위험도를 분류하는 '벤치마킹 시스템' 도입을 부결시켰으며, 일부 의원들은 특정 생산자를 면제하는 '무(無)위험' 카테고리 신설을 주장함
 - 집행위는 EU 및 비EU 이해관계자들의 준비 수준이 고르지 않음에도 과속 추진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, 작년에도 여러 글로벌 파트너들이 준비 부족에 대한 우려를 공식 표명했음을 당국이 인정함

- 고위험 지역에서 원자재를 조달하는 다국적 기업들에게 이번 연기는 일시적 완충 시간을 제공하지만 불확실성은 오히려 확대될 전망

 - 규정이 발효되면 기업들은 여전히 엄격한 실사(due diligence) 의무를 이행해야 함
 - 이를 위해 지리정보 역량 강화, 공급업체 계약 조정, 브뤼셀의 통합 플랫폼과 연동 가능한 IT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이 필요함
 - 투자자와 정책입안자들은 집행위가 수정된 일정 내에 기능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지 면밀히 주시하고 있음
 - 시스템 구축이 또다시 실패할 경우 추가 연기 가능성이 커지고 EU의 지속가능 무역 표준 제정자로서의 위상이 흔들릴 수 있음

- EUDR은 유럽 그린딜(European Green Deal)의 대표 정책 중 하나로 시장 접근을 지렛대로 기후 성과를 이끌려는 브뤼셀의 핵심 전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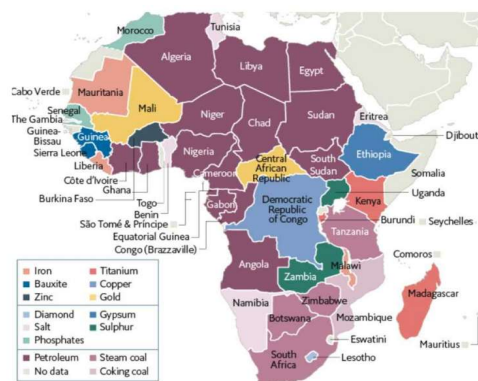
 - 시행 연기는 유럽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파급효과를 미칠 전망이며, 원자재 수출에 의존하는 신흥국들은 토지이용 거버넌스 강화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
 - 한편, 중국과 미국 등 경쟁국들은 유럽이 실제로 이 조치를 이행할 수 있을지 면밀히 관찰하고 있음
 - 기업 경영진에게 이번 차질은 지속가능성 입법이 실행 인프라보다 빠르게 진전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상기시킴
 - 규제 당국이 추적가능성과 공시 기준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가운데 디지털 기반의 컴플라이언스 관리 능력이 기업과 정부가 기후 공약을 실현할 수 있을지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됨

참고자료: <https://esgnews.com/>(검색일: 2025.10.14.)

아프리카 핵심광물 확보 경쟁 본격화 ... 안정적 수급을 위한 로비토 회랑 중요도 확대

- ▶ 전 세계적인 수요 증가에 따른 핵심광물 확보 경쟁이 본격화됨에 따라 아프리카 시장의 전략적 가치 부상
 - 전기차, 배터리, AI 반도체 등 첨단 산업 확장에 따라 글로벌 기업은 주요 원재료인 코발트, 리튬, 구리 등 핵심광물 확보를 위해 신규 시장 진출 및 공급망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음
 - 미·중 무역이 가속화되고 트럼프 2기 이후 관세 이슈가 장기함에 따라 세계 광물 자원의 30%를 보유한 아프리카가 최근 핵심광물 주요 국가로 부상하고 있음
 - 그 중 콩고민주공화국(코발트, 구리), 남아공(망간, 리튬, 우라늄), 모잠비크(석탄, 구리, 보크사이트) 등이 주요 생산국으로 나타남
 - 다양한 핵심광물 분포 및 다량의 매장량을 보유한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세계 각국은 안정적인 자원 확보를 위해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
 - 중국은 과거부터 '일대일로'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대규모 광업 인프라에 투자하고 있으며 EU는 '22년 EU-아프리카 글로벌 게이트웨이 투자 패키지 발표를 통해 인프라 투자 진행 및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음

아프리카 내 핵심광물 주요 분포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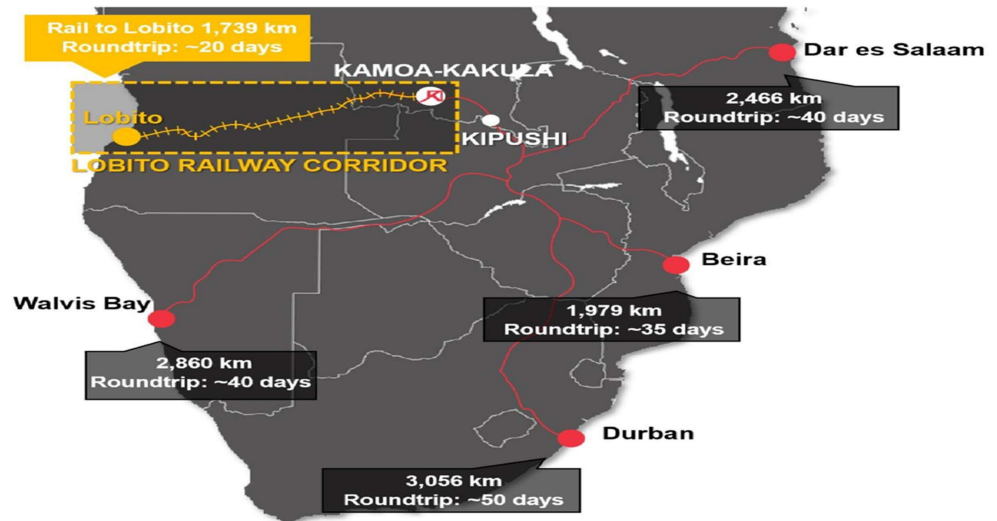
국가	주요 자원	연간 광물 생산액 (십억 달러)
남아공	망간, 백금 등	124.96
나이지리아	원유, 철광석 등	52.69
알제리	탄산수소	38.70
앙골라	금, 원유 등	32.04
리비아	원유, 점토광물 등	27.03
이집트	구리, 은 기타	23.22
가나	금, 철광석 기타	14.97
콩고민주공화국	금, 구리, 코발트 등	13.69
가봉	망간, 철광석, 우라늄 등	10.92
짐바브웨	백금, 크롬, 석탄 등	9.77

자료: EIU(2023), Okafor(2023) (검색일: 2025.10.13.)

- ▶ 핵심광물 루트의 병목 해소를 위한 핵심 기반 시설인 로비토 회랑 중요도 확대
 - 아프리카는 다량의 핵심광물을 보유하고 있어 여전히 자원 개발의 잠재력과 매력도가 높은 지역으로 평가되지만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병목 현상이 주요 한계로 지적되고 있음
 - 과거 동다르에스살람항, 마푸토항 등을 통해 광물을 수출해 왔으나 도로 및 철도 인프라의 유지·관리 한계, 리드타임 증가, 치안 불안정성 등으로 인해 물류 안정성 확보가 어려움
 - 이에 로비토 회랑(Lobito Corridor)이 기존 병목 문제를 해소할 핵심 기반 인프라로 주목 받고 있음

- 이 운송 루트는 앙골라 로비토항에서 출발해 콩고민주공화국(DRC), 잠비아 등 광물 생산지와 해상 운송망을 직접 연결하는 서부 수출 회랑으로 기존 동부 루트 대비 운송 기간을 5~10일 이상 단축할 수 있으며 현재 일부 구간에서 부분적으로 운영 중임
- 본 루트의 활성화를 통해 아프리카는 수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고 있으며 수출 경쟁력 제고 등 경제적 파급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됨

로비토 회랑 노선도



자료: IVANHOE MINES (검색일: 2025.10.13.)

- ▶ 로비토 회랑은 '30년까지 인프라 확장 및 경제 개발을 통해 핵심광물 관련 공급망 거점 국가로 성장 도모 예상
 - '30년까지 루아카노(Luacano)~짐베(Jimbe) 간 신규 철도 건설과 함께 수억 달러 규모의 철도·항만 처리 능력 확대 투자가 진행 중이며 내륙 광산지대와 연결성을 강화할 계획임
 - 또한 회랑 주변을 중심으로 산업단지·자유무역지역을 조성해 제조업 기반 확충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산업 기반 확대가 기대됨
 - 정제·가공 등 부가가치 시설 유치를 통해 자원 수출 중심에서 공급망 거점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

참고자료: <https://www.fastmarkets.com>, <https://highways.today> (검색일: 2025.10.13.)

『국제물류 정보포탈』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서비스 안내



친구 추가 방법

1. 카카오톡 메인화면 상단 친구 검색



2. '국제물류 정보포탈' 검색



3. 친구추가 버튼

